

특화역량 BI육성지원사업 전국 1위 선정

전북자치도바이오진흥원,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통한 도내 우수 창업기업 육성에 앞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특화역량 BI육성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화역량 BI육성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와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어 갈 창업보육센터 육성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공모사업이다.

바이오진흥원이 주관하고 전북대학교, ECU융합심사연구원, 전북과학대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난해 호남권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2025년 지속 지원을 위한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여 전북특별자치



도의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상은 3억원(1개소), 중은 2억5천만원(2개소), 하는 2억원(4개소)을 지원하는 2025년 국비지원에서 바이오진흥원은 '상' 등급으로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중기부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는 각 참여 기관 간 정보 및 인적 인프라의 효율적 공유와 기관별 특화된 역할 분

담을 통한 혁신적 운영으로 도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콘테스트를 통해 20개소를 선정하고 기술 및 사업 고도화, 투자유치 역량강화, 창업소외지역 컨설팅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심사위원을 제언해 주었다.

특히, 지원사업 참가기업 중 (주)에프엘컴퍼니는 NS푸드페스타에서 주최한 창업경진대회 수상과 이를 통한 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주)반석산업은 매출 24억에서 58억(242%)으로 고용 6명에서 18명으로(300%) 큰 성장을 이루었다.

바이오진흥원은 올해도 프로그램을 보완 개편하여 최적의 맞춤형 창업기업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내 20개사 창업기업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전북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본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고, 본 사업을 통해 전북 도내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을 촉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전후방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도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들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본 사업이 지역 창업 거버넌스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지난 12일, 캠틱종합기술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태양 돛(Solar Sail) 전개장치 시제품의 전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캠틱, 태양돛 전개 시험 성공

무연로 우주항해 기술 진전... 새 우주탐사 가능성 열어

지난 12일, 캠틱종합기술원(이하 캠틱, 원장 노상훈)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공우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태양 돛(Solar Sail) 전개장치 시제품의 전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태양 돛은 마치 돛단배가 바람을 이용해 항해를 하는 것처럼 태양이 방출하는 광자를 돛에 반사시키는 원리로 추진력을 얻어 우주선 등의 우주항해물체가 별도의 연료없이 장기간 우주 공간을 항행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에 개발된 태양 돛 전개 장치는 가로 세로 각 10m 크기로, 2024년 4월 NASA가 발사한 가로 세로 각 9m 크기의 우주 범선 'ACS3' 보다 크게 제작되었다. 이 태양 돛은 기존 NASA의 모델보다 약 28% 넓은 면적을 확보해 더 많

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두께 12mm의 알루미늄 증착 PET 필름 재질을 적용해 매우 가볍게 제작되었다.

캠틱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태양 돛 전개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인 돛, 붐(Boom), 태양돛을 지지하는 구조물) 전개 시스템과 돛 수납장치 등의 설계, 시제품제작, 지상 테스트, 전개시연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으며, 최소한의 공간에 돛을 안전하게 접어 우주에서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는 태양돛 제작 기술을 확보했다.

캠틱과 항공우연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태양 돛을 실제 궤도에서 운영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우주 탐사 분야에서 태양 돛의 실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김옥기기자



전주농협, 미나리 생산자협의회에 재해지원금 300만원 지원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최근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미나리 생산자협의회에 300만원의 재해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주농협은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확산된 가운데, 지역 농업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해지원금은 미나리의 생산자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전주농협을 대표하여 박건후 교육지원실장이 미나리 생산자 협의 회장에게 300만원의 위로금을 전하며 "미나리 재해지원금을 전달해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애국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땅과 씨앗을 돌보는 데 고군분투하는 농민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앞으로 더욱 힘차게 농사를 이어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O만호기자

‘강한 경제’ 전주시의 원동력, 유망 관광 스타트업 발굴

‘관광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통해 5개 유망 예비 창업가 선발

‘강한 경제’ 전주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관광 분야 스타트업이 발굴됐다.

전주시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전주 소통협력센터에서 관광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김장훈·김영선·김정재·홍진혁·이진명 등 총 5개의 우수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시 관광창업아카데미’의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관광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28팀이 참여한 가운데, 여행패키지와 관광콘텐츠, 굿즈 등 전주시 관광산업의 미래를 밝힐 각종 아이템을 가지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종 선발된 5팀은 마케팅 전



략 수립 및 투자유치 등의 심화 교육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및 특강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팀당 최대 1,000만원의 실증비를 차등 지원해 이들이 향후 5개월 동안 전주현목마을 일대를 대상으로 상용화 이전 지역특화 여행상품을 실증해 시장성을 검증하고 창업성공

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시는 성과 우수자들에게 대해서는 오픈지플래닛 전주센터의 창업 프로그램 및 창업패키지 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사 및 실증 지원을 1회성 사업이 아닌 관광 창업 활성화화를 위한 공유와 네트워킹의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지역 내 관광·문화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관광 창업 경진대회에서는 관광 분야 창업 트렌드 및 창업 분야별(제조, 지식서비스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수적인 창업요소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토크콘서트도 마련됐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전북 구경 브랜드로 농업소득 3000만원 기반 마련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24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전북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로코노미=지역(Loc)과 경제(Economy)를 합성한 신조어로, 지역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상품 혹은 공간을 일컫는다) 상품 브랜드 고도화 사업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축협 9개소, 농식품 판매 벤더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공 히트상품 개발, 신규채널 입점, 가공사업 수출확대 방안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호협력력을 통해 전북 농식품 판로확대를 추진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전북농협은 참여 농축협 9개소를 통해 브랜드 히트상품 개발, 대형 식품박람회 참가, 신규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통해 상품화·판매·마케팅 등 사업전반 원스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농축협 9개소(상품)는 전주(쌀 가공품), 공덕(고구마가공품), 군산(원예(참뽕라면), 대성(땅콩), 동진(떡볶이), 익산(참쌀떡), 임실치즈(치즈요거트), 해리(소금) 등이다.

/O만호기자

농진청, 사료용 옥수수 논 재배관리 요령 소개

정부에서는 쌀 수급 안정과 발자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전라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료용 옥수수는 전라작물직불제 대상 작물 중 하나로 사료작물 중 단위면적 당 생산성이 가장 높고, 사료가치가 우수하며 가축 기호성이 뛰어나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논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확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배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사료용 옥수수 적정 파종 시기는 중부지역은 4월 중순, 남부지역은 4월 상순이다. 옥수수 씨를 뿌리기 전에는 가장자리와 내부에 물빠짐 길을 조성하고, 18cm 이상 깊이갈이를 하면 물빠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토양의 투수성과 통기성이 개선되면 습해가



줄고 뿌리 생육이 촉진돼 안정적으로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토양이 물에 잠기면 늦어도 3일 이내 물에 빠 줘야 한다. 옥수수가 4일 이상 물에 잠기면 식물체의 키, 줄기 두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잎 마름 현상으로 정상 개체보다 노화가 4일 이상 빨라진다. 또한 잎이 펼쳐지는 속도로 판단하는 생육 발달 역시 3~4일 정도 늦어진다. 1% 요소 액을 잎에 뿌리면 침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